

# 종교계 민주운동 헌신 되새기자

### 6월 항쟁과 불교 역할 밝히는 첫 학술대회



6월 민주항쟁 26주년을 맞아 부산지역 불교계의 민주화 운동을 재조명하는 기념학술대회가 6월10일 부산민주공원 소극장에서 개최됐다.

6월 민주항쟁 26주년을 맞아 부산지역 불교계의 민주화 운동을 재조명하는 기념 학술대회가 6월10일 부산민주공원 소극장에서 개최됐다.

부산지역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부산지역 민주화 운동사 중 묻혀 있었던 종교계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첫 학술대회였다. 이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등 민주화 운동사의 종교계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종교부문에선 처음 개최된 학술대회로 그 의미가 크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설 민주주의 사회연구소(소장 김하원) 주관으로 마련

### 10일 부산민주공원 소극장서 불교계 민주화 운동 재조명

이번 학술대회는 '87년 6월 민주항쟁과 종교계의 역할'이란 주제 속에 당시 민주화 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각 종교계 활동가들이 발표자로 참여해 열띤 자리를 가졌다.

이번 발표된 학술 자료들은 향후 부산 민주화 운동사의 종교부문운동 자료로 소중한 기록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불교계에선 전 한국대학생불교운동연합 부산지부 지도간사 안민환씨의 '87년

6월 항쟁과 부산지역 불교운동' 발표에 이어, 전 대불련 부산지부 간사장 성재도씨가 '부산지역 불교운동의 변화와 발전'을 주제로 토론자로 나섰다.

안민환(부다피마명상센터 지도법사)씨는 발표를 통해 "동체대비 사상은 부처님의 실천적 가르침이자, 불교의 생명가치"라고 강조하며 "이번 학술대회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사상 실천에 앞장섰으나 잊혀졌던 80년대 부산지역에서 민주화를 위해 뛰어든 불자들의 노고와 헌신을 자라로 정리하고 남기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성재도씨는 "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기폭제가 되었던 박종철 열사의 추모제는 불교계가 중심이 되었던 중요한 행사임에도 불교계의 역할이 묻혀져 있었다"며 "이번 학술 발표를 통해 6월 민주화 항쟁의 불교계의 역할이 바르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장영근 실장은 "이번 발표는 87년 6월 항쟁과 민주화 운동사의 총정리를 위해 2010년경부터 진행된 학술대회의 일환으로 시민운동사, 학생운동사에 이어 정리가 부족했던 부분 운동사 중 종교계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독교(발제-김해동,토론-송영웅), 천주교(발제-이동화,토론-최수연), 불교(발제-안민환,토론-성재도), 원불교(발제-이광희),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 실천으로 만중생에게 회향해야

### '붓다로 살자' 부산결사모임

부산지역에서 붓다의 정신으로 돌아가 붓다처럼 살자는 승·재가 함께하는 자발적 결사모임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6월10일 부산 불자사 화엄회관에서 마련된 이번 모임에는 '붓다로 살자' 결사모임에 앞장서고 있는 도법 스님(자성과쇄신결사 추진본부장)을 초청 결사의 뜻을 함께 나누었다.

도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깨달음 절대주의를 추구하는 한국불교의 모습만 유지하면 무너지고 말 것이다"며 "만중생의 이익과 안락, 행복을 위해 온 생애를 바친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역동적 삶을 실천하고 본받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관념 속의 특별한 부처를 찾지 말고, 우리가 본래 부



'붓다로 살자' 부산결사모임

처라는 자각 속에 한국불교다운, 대승불교다운, 현대불교다운 불교 정립을 위해 승·재가가 함께 대화하고 실천하는 결사에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한편, (가)붓다로살자 부산모임(준비위원 손정현)은 6월 22일 조계사에서 개최되는 '붓다로살자 첫걸음' 행사에 참가한 후, 본격적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 삼광사 효행상 시상



삼광사 효행상 기념사진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는 효행신 보급과 지역 노인들을 위한 '제19회 삼광효행상 시상식' 및 제23회 삼광경로잔치'를 개최했다. 6월 11일 삼광사 지관전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주지 무원 스님을 비롯, 이현승 신도회장, 하태열 부산진구청장 등 3,000여명의 시민, 불자들이 함께 했다. 무원 스님은 수상자들에게 각 30만원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 은혜사, 선화여고 교직원들과 축구대회

### 2대 1로 스님팀 승리

은혜사와 영천 선화여고는 6월 7일 친선 단합 축구대회를 선화여고 운동장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은혜사(주지 돈관) 스님들과 선화여고(교장 장정익) 교직원 100여 명이 참여, 축구를 통해 친선을 도모했다.

축구대회는 스님팀과 교직원 팀으로 나뉘어 전·후반 각 30분으로 진행됐다. 이날 경기는 스님팀의 승리로 끝났다. 교사팀은 외국인 영어교사 데라이 맹활약을



은혜사-선화여고 축구 장면

했지만 돈관 스님과 운부암 덕재 스님의 공격에 밀려 2대 1로 스님팀이 승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금어암 동래차밭골문화재

부산 금어암(주지 월강스님)은 제19회 동래차밭골문화재와 금어약수차밭다신제 행사를 개최했다.

6월 11일 금정공원 내 금어사 경내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주지 월강스님, 전 범어사 주지 정여스님, 부산여성 불자회 왕산자 회장을 비롯 지역 차인들과 시민, 불자 200여명이 함께했다.

금어약수차밭세이 이운식과 다신에 육법공양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한 이번 행사는 가회구수장포도데시연, 두리차회, 시낭송대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졌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 캠페인

###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 허술한 석축... 자연재해 원인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큰 비가 내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 사람들이 공들여 만든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잃는 일이 허다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사람의 힘으로는 막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더구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고 현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발생하는 피해의 범위가 정도가 더욱더 심각해진다. 이러한 경우에는 천재라기보다는 인재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인데, 우매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러한 경우를 수없이 봐왔으면서도 아직까지 자연을 파괴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사찰이 산지에 그렇게 많이 지어졌으면서도 자연재해를 크게 입지 않은 것은 자연이 가진 생태적 수용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자연을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건물 크기도 터에 따라 적당한 규모로 조정하였으며, 지형을 여러 단으로 나누어 절도 범위와 절도량이 과다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야말로 계단식 논을 만들 듯이 지형을 다스려 사찰을 지어냈던 것이다.

최근에 사찰을 새로 짓는 경우나 고찰의 공간범위를 확장하는 현장을 가보면 임이 딱 떨어질 정도로 엄청난 자연지형의 변경행위를 볼 수 있다. 물론 토목기술이 과거와 다르고, 재료가 좋으니 예전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가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연이라는 것은 그것이 변형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그 범위를 잘 파악하지

않으면 자연은 인간의 새로운 기술을 비롯가라도 하듯이 심술을 부리고 만다. 이것이 바로 인재인 것이다.

고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건물을 짓고 마당을 만들면서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은 물 처리였다. 큰 물이 나도 그 물이 사찰내부로 밀려들어 오지 않도록 사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서부터 물 처리를 위한 다양한 구조의 배수로를 확보하였다. 석축을 하더라도 땅을 깎아낸 구간에는 석축을 하지 않았다. 원지형을 유지하면서 석축을 한 다음 흙을 메워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래야만 원지형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여 흩어 밀려 내려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번 여름에는 장마가 일찍 온다는 것이 기상청의 예보이다. 지금부터 사찰안팎을 살펴서 인재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곳이 있다면 서둘러 고치고 보강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 도량이 장마 비로 인해서 무너진다면 그것은 불자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허술하게 쌓은 석축은 자연재해의 원인이 된다. 경기도 보사할



아름다운동행 대한불교조계종

# 아프리카 학교건립 불사

극심한 가뭄과 기아, 질병 그리고 부족한 배움의 기회로 인해 아프리카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농업학교 건립을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전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후원참여]



[별물 한정] 10,000원



[책상·의자] 50,000원



[땅 한평] 100,000원



[식수대] 300,000원



[컴퓨터] 1,000,000원



[교실 한동] 10,000,000원



[법당(10명)] 50,000,000원

[후원계좌]

농협 301-0112-9859-51 (예금주 : 아름다운동행)

[후원문의]

[www.thenanum.org](http://www.thenanum.org) T. 02-737-9595 F. 02-737-9195

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설립한 공익기부재단입니다.